

<2013년 12월 20일 금요일 새벽 잠언>

28. 돼지, 닭, 양 등 가축들은 주인이 자기를 기르는 목적을 모르고 살고 있다. 돼지의 목적과 주인의 목적은 다르다. 돼지는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러나 주인은 “정한 날에 잡아먹으려고 기른다.” 한다.

29. 돼지 스스로 정한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주인은 정한 날에 돼지우리의 문을 열면서 “나와라. 살이 많이 찼구나.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하며, 아들 혼인 잔치 때 진수성찬으로 만들어 먹는다.

30.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목적도 다르다. 인간 프로그램은 자기 생각, 자기 목적일 뿐이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계획대로 감행하신다.

31. 오직 창조주의 목적대로 산 것만 남아지고, 나머지는 자기 행위대로 대가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32. 사람들은 거의 먹고 즐기는 것, 사랑, 향락, 명예, 물질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생들이 하나님 주관권 안의 삶을 살면서 ‘영’을 위해 살아 구원받는 삶을 원하신다.

33. 육신을 위한 삶은 육신이 쇠약해지면서, 모두 같이 쇠약해진다.

34. 주인은 돼지, 소, 닭을 주인의 기쁨을 위해 기르고, 자녀의 혼인 잔치를 위해 기른다.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기르신다. 고로 하늘 혼인 잔치인 ‘휴거’를 위해 돕고 사랑하며 키우신다. 인생들이 이 목적을 알고 이 목적을 위해 살면, 그로 인해 기쁨과 희망이 충만하게 된다.

3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구 수백 개보다 더 큰 <황금성 천국>을 창조해 놓고, 모두 구원받고 휴거되어 그곳에 오라고 매일 도와주며 분체를 통해 시대 말씀을 주신다.

36. 인간은 각자 100년밖에 못 산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를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이니,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겠느냐.

37. 천국에는 <황금성 천국>이 있고, 그 안에 휴거되어 그곳에 거할 자들의 ‘집’이 지어진다. <황금성 천국 안의 집>은 인간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저마다 구원자를 통해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대로 그 공적과 사랑의 차원대로 지어진다.

38. 자기가 수고하지 않으면, 자기 영이 천국에 거할 집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100% 천국을 만들어 주셨다. 그 안에다 자기 영이 거할 집을 자기 육의 행위로 만드는 것이다. 성자가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셨는데, 각자의 행위와 공적대로 예비하신

다.

39. <목적>이 뚜렷하면, ‘생각’도 뚜렷해지고 ‘행동’도 뚜렷해진다.

40. 구름도 뭉쳐야 덩어리가 보인다. 사람의 ‘마음·정신·생각’도 뭉쳐야 형태가 또렷이 형성된다. 그래야 ‘혼의 형체’도 확실해지고, ‘삶의 목적’도 확실해져 확실히 행하게 된다.

41. 전도도 그러하다. 개인, 교회, 섬리사가 몇 명을 전도할지 확실히 목적을 정하고 행해야, 목적이 있으니 이루게 된다.

42. <목적>을 안 주면,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보이지 않으니 행하지 못한다.

43. 생각은 관념이다. 행해야 ‘실체’를 낳는다.

44. 육의 몸과 눈으로 못 찾으면, 차원 높여 혼으로 찾아라.

45. 육으로 생각하여 ‘안 될 것 같다.’ 할 때는 네 혼이 있으니 ‘혼’을 가지고 육과 같이 행해라. 육이 혼에게 시켰는데 혼으로도 안 되면, 네 ‘영’에게 시켜라. 그러면 육으로 안 될 것이 된다.

46. <휴거>도 육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혼’과 함께하고 ‘영’과 함께하면, 성자도 분체도 휴거시키는 것이 목적이니... 된다!

47. 육이 가만히 있으면, 혼과 영이 변화되지 않는다.

48. 육이 좋게 행하는 대로 혼과 영이 좋게 변화된다.

49. <목적>을 두고, 자기 육을 만들어 변화시켜라. 그로 인해 혼과 영을 만들어 변화시키기다.

50. 영원한 목적을 두고 기필코 목적인 것을 행하여라! 그것이 황금을 얻는 일이다. 왜 노느냐? 왜 못한다고 하며 조금 하다 마느냐?

51. 자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루는 것인데, 못 하고 말 것이냐? 못 하면 네 육과 혼과 영이 끝없이 흑암으로 내려간다. 거기에 빠져 혼자 살아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행하여라!

52.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나 몰라서 <지옥, 무저갱, 음부의 삶의 길>로 매일 행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

53. 매일 주와 일체 되어 <천국의 삶의 길>로 살아라.

54. ‘휴거의 가치’를 알아라. 지구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것을 받지 말고, 휴거돼야 한다. 그만큼 가치를 알아야 휴거된다.

휴거되면, 지구보다 수백만 배 더 좋은 <천국 황금성>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나 지구는 받아도 인생 100년 밖에 못 사니, 100년도 못 누리고 죽는다. 그리고 그 영은 지옥에 간다.

그러니 ‘지구’보다 ‘휴거’가 더 귀하다. 계산을 잘해라.

55. 휴거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랑, 성자 사랑이다. 그리고 황금 신부성이다.

56. 태양 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은 자기를 녹이고, 성자도 녹이고, 모든 사람들을 녹이는 뜨거운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해라.

57. 천국으로 가려면, ‘사랑’을 써라. 지옥이나 세상으로 가는 데 네 사랑을 쓰다가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